

< 별첨 >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현장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19. 11. 18. (월) 15:00

금 융 위 원 회

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 제공하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멀리까지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님,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님과,

유암코 대표이사님,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님,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TF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26일 부산에서 개최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금융기관, 투자자, 기업주 등 이해관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금일 간담회는
그간 진행상황과 성과사례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II. 그간의 성과 및 DIP금융의 중요성

그간의 성과

우선, 작년 8월에 출범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금년 11월 현재 약 1조원이 조성되었으며, 구조조정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 등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긴요한 분야에 약 5천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 개시결정 전부터 채권자들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의토록 하여 기업이 조속히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결정 사이에서 기업·채권자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 자율구조조정이 성사되면 회생절차 진행하지 않음

유암코도

기존 부실채권 매입·정리 사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법원 회생절차 진행으로 일감 확보가 어려운 조선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을 직접 인수(M&A)하거나 DIP금융을 공급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적극 활약하고 있습니다.

캠코는 회생기업에 대한 DIP금융과 함께,
경영정상화(Turn-around) PEF에도
투자자로 참여하여 구조조정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회생 기업의 M&A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채권 매각을 보류하는 등
법원과 상호협업을 통해 상생의 길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DIP금융의 중요성

간담회에 앞서 진행되었던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 출범식 및
MOU 체결 행사에 여러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

** 年 400억원 자금공급(캠코 300억원 / 중진공 100억원) + 컨설팅(중진공) +
이행보증(서울보증) + 담보권 실행유예(은행권) + 회생절차 협조(회생법원)

기업이 예기치 못한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직면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시장에서 부실기업으로 알려지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자금 조달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생기업의 재기에 있어
필수적인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DIP금융에 대해
여러 기관이 힘을 모은 것은,
향후 기업 정상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Ⅲ. 최근 환경변화 및 향후 과제

금년 8월 글로벌 경제회복지수*는
'16.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경제회복세 둔화에 따른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브루킹스 연구소 - FT 공동발표 지수. +값일 경우 경기회복세. ('19.8월 기준 : 0.44)

우리 산업과 기업이 겪는 파고(波高)는
생각보다 깊고
그 여파도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① DIP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

오늘 출범한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는,
규모가 작아 시장에서 자발적인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자금을 직접 공급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DIP금융 전용펀드'*를 조속히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적시에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약 2천억원 규모 : 한국성장금융 + 캠프(年 600억원 투자) + 민간 GP·LP 참여

②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운용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현행 1조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서 정부예산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적절한 투자처 탐색에

장기간이 소요(4~5년)되는 펀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지원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하고,

소중한 인명을 지키기 위하여

충분한 소방 인프라를 미리 갖춰 놓는 것처럼,

구조조정 시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는

구원 투수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과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조업 등

우리 주력산업의 체질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민간 시장이 경쟁력을 지닌 기업을

선별(screening)하고 집중(focusing)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조타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③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TF

마지막으로, ‘기업 구조조정제도 점검 TF’에서는
지난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의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제도와 사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기업에서 원하는 바를 잘 수렴하여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해
의미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IV. 맺음말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사전 예방적 구조조정으로
은행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앞으로 다듬고 보완해야 할 점들도 많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사례와 아이디어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에 대해
청사진을 그리는 소중한 단초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기업, 투자자, 정책금융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간 적극적인 협업과 경쟁으로
구조조정 시장이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적인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